

# 쇄신불사, 불교계 단체 입장 연이어

## 조계종 조계 스님, 교시·교구본사주지협 성명 발표

조계종총무원이 6월 7일 발표한 쇄신안에 대한 불교 각계의 입장이 연이어 발표됐다.

조계종 조계 스님은 6월 12일 교시를 내리고 최근 도박 사태 등 현안을 넘어 서기 위해 위법방구의 정신으로 종단 쇄신에 진력할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스님은 교시에서 "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진 국민들에게 최근 심대한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상은 승가(僧伽)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불철주야 수행정진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진제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쇄신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우리 종단 중흥의 초석이 되는 쇄신불사는 원만히 성취돼야 한다"며 "종단 사부대중은 율장정신과 종헌정신으로 종단을 안정시키고 수호하고 각자 본분에서 수행과 교화에 정진해야 한다. 불식신명(不惜身命)하고 위법방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국민의 염원과 여망에 부응하고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불교가 되라"고 교시를 내렸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혜)는 6월 14일 종단 쇄신계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렸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7일 총무원장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쇄신계획'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중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종단의 쇄신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전국 본말사의 모든 사부대중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단은 이번에 발표한 1차 쇄신계획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쇄신계획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인사(주지 선각)는 6월 10일 열린 참회 정진을 열고 수좌 원용 스님을 비롯해서 중 원로 정원, 종전, 관후, 주지 선각, 종회의원 심우, 경성, 대오 스님과 신도 등 해인사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탄신상이 모셔져 있는 해인사 룸비니동산을 출발해 일주일에 이르는 1km 구간을 7보 1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공동대표 만초·이수덕·성태용, 이하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6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단 쇄신계획



법보 종찰 해인사는 최근 도박사태로 인한 승중 실추를 참회하기 위해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보 1배를 진행했다.

### 지도층, 쇄신안 동참 결의 해인사 7보 1배 참회 정진 연대회의 "진정성 보여라"

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내용과 방향을 준비함에 많은 노력은 기울였지만 쇄신안이 선언적이며 실천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모든 범계행위와 행정상의 비리들은 종단의 권력이 소수의 비구 중심으로 기득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순환적인 모순"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점과 기득권의 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한 방법이 중회의 재가자 참여이며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중회 상하원 이원화해 재가자 참여 제도화 △범계행위 감찰기구에 사부대중 참여 명문화 △승무원장 연주암 반한 △쇄신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법 제시 △3개월 이내 직영, 특별분담금, 직할 사찰 재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범음)는 "한국 불교, 희망이 되겠습니까"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종단과 교구본사의 진정성 있는 개혁과 쇄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중회의 임명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자료집의 임장문을 통해 "조계종은 모든 것을 사회와 국민과 불자에게로 회향한다는 유신의 자세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故 대행 스님 부의금 전액 기부 회향

지난 5월 22일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끝낸 한마음선원은 추도 기간 중 들어온 조의금 전액을 각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한마음선원 문도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두루 나누시려 했던 은사 스님의 뜻을 기려 조의금 전액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도회는 또한 대행 스님의 사리수습과 관련해 "스님께서 평소 사리 수습으로 또 하나의 상(相)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유지를 지켜 조의금 전액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월 22-26일 대행 스님 장례기간 동안 접수된 조의금은 5억 여원으로 논산 군부당 건립 (2억원), 불교TV 영상포교(2억원), 안양시 청소년 인재육성학재단(1억원) 기금으로 사용됐다.

해수 스님(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해수 스님(한마음선원 대구지부장), 해은 스님(한마음선원 자료실 담당)은 6월 15일 불교TV 본사를 방문해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에게 영상포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성우 스님은 "대행 스님이 입적해 얼마나 상심이 큰지 잘 안다. 그런데도 영상포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대행 스님이 물심양면으

로 도와주신 덕분에 불교TV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수 스님은 "그동안 불교TV와 함께 은사 스님의 영상법문을 상영하는 등 많은 일을 같이 했기에 대중들과 마음을 모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포교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월 28일 주지 해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대행 스님의 초제를 봉행하고 스님을 추모했다. 대행 스님의 49재는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대로 따르기로 했다.

### 사리는 유지대로 수습 않기로

### 49재 조문비 모두 기부 결정

△4재=6월 18일 △5재=6월 25일 △6재=7월 2일 정오에 열리며 49재는 7월 9일에 봉행된다.

한마음선원 문도회는 "은사 스님은 늘 생활불교를 주창하시며 고통 받는 생명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셨다"며 "저희 문도회는 스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정진과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49재 추모 기간이 끝난 후 그동안의 조의금 역시 여러 불교 기관에 후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해수 스님(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왼쪽)은 6월 15일 불교TV 본사를 방문해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에게 영상포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 종교인 과세 "재정 투명화 가져와"

###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 워크숍

대형 교회와 사찰이 부를 축적하고 일부 성직자들의 호화생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12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열린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주최한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 세미나는 이 시대 종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상구 종교권력감시 시민연대 대표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를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

연대 집행위원)가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종교별 성직자 노후복지를 중심으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범음 스님은 "종교가 스스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종교인 네트워크는 6월 12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열고 종교인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는 합법"

### 조계종문화재사찰위, 입장 발표... 즉각 항소

### 엄연한 사찰지... 정부 대책 요구

최근 지리산 천은사 경내 지방도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한 데 대해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종삼, 이하 문화재사찰위)는 6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은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와 지리산 관광도로의 개설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문화재사찰위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와 제74조에 의거한 합법적 조치"라며 "천은사 역시 국보, 보물을 보유하고 있고 사찰 일원도 전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문화재다. 천은사 지방도를 통행이 아닌 관광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도 이미 나왔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판시한 '통행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천은사가 포

함된 861번 지방도 지리산 구간은 공공도로가 아닌 지리산 국립공원 내 관광도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사찰위는 "861번 지방도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종단과 사찰의 승인 없이 88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 방식으로 개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이 심하게 파괴됐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용수용해 개설하지도 않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 공식도로도 아니다.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전통사찰보존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사찰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리산 일주 관광도로 폐지 후 원상회복해 사찰 소유지 반환 △천은사 주차장에서 시암까지 친환경 셔틀버스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향후 당해 사찰인 천은사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활동과 환경단체와 연계한 지리산 살리기 운동 등 사회 공익적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 "종교분쟁, 미얀마 민주화 위협하고 있다"

### UN인권특사 미얀마 유혈충돌사태 성명서 발표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분쟁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토머스 오지 키타나 유엔(UN) 인권특사는 미얀마에서 벌어진 유혈충돌 사태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키타나 대사는 6월 14일 성명에서 "종교적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미얀마 정부는 근본적 해

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타나 대사는 "종교 분쟁이 미얀마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절제심을 발휘해 폭력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충돌은 미얀마 내 라카인주의 압도적 다수파인 불교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가족(族)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나는 기자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 (若見 如來舍利即是見佛)

#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말로만 듣던 부처님의 사리집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사진으로나마 처음 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수정(水晶)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빛 그대로 보옥(寶玉)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이후 이천오백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주요 목차

- 진신사리의 연원
- 부처님의 생애
- 석가모니 부처 사리
- 부처의 10대 주요 제자 사리
- 5대 비구 사리
- 500아라한의 사리
- 16아라한의 사리
- 아라한과 다른 기타 사리
- 사리의 진품 증명서
- 살리의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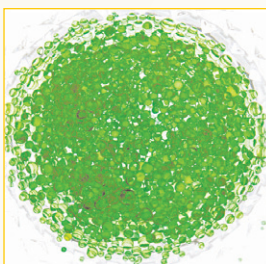
호화판 양장본 정가 ₩280,000원



부처님의 뇌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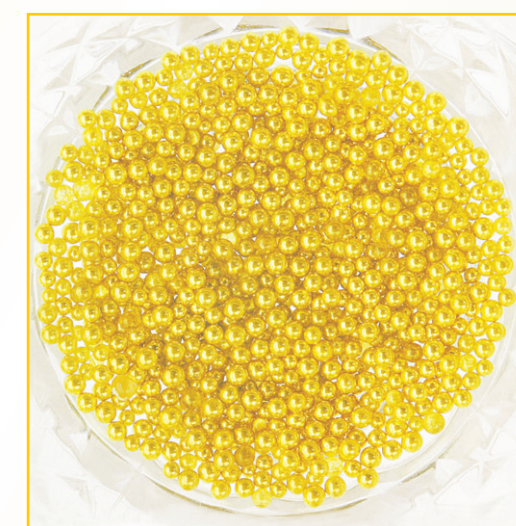
부처님의 힘 사리



진신사리 사진집



부처님의 사리 증명서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부처님 혈(血)사리

## 아라한과 진신사리 증정

아라한과 사리를 직접 친견하고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년 부처님 탄생지에서 봉행사는 룸비니 세계불교문화올림픽 기금 조성 및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보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사리집 + 크리스탈 사리함 (목좌대 포함 + 아라한 사리 1과)]

티벳과 네팔 등지에서 어렵사리 모셔 온 아라한과 사리는 정성껏 모시고 기도하면 증과를 하는 영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맑게하며 어떤 장애와 고난으로 부터 극복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리입니다.



아라한(阿羅漢, Arhan)이란 준말로는 나하(羅漢)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불제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이며 부처님 시대나 그 이후의 세대 동안 수행을 하면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존경 받는 불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서 선근(善根)과 인연(因緣)으로 모두가 부처님 사리집과 아라한 사리를 모시는 혜택과 함께 무량한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TEL : 053)325-0400, 325-5288 / FAX : 053)325-4848 / H·P : 010-6483-0089 / e-mail : sambo111@hanmail.net

●입금계좌 농협 : 351-0469-0075-73 예금주)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